

# 버스 타고 소형아파트 생활... 청빈·겸손 대명사



새 교황 프란치스코는

소박한 노동자 집안 출신... 2005년에 유력후보로 꼽혀

“교리는 보수적, 사회문제는 진보적”... 탱고·축구 즐겨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는 청빈과 겸손의 대명사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아르헨티나 가톨릭 교회의 현대화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도 꼽힌다.

지난 2005년 콘클라베에서도 유력 후보로 꼽혔으나 베네딕토 16세에 교황 자리를 내줬던 그는 8년 만에 소집된 회의에서 추기경단의 폭넓은 지지로 교황 자리에 올랐다.

사상 최초의 예수회(Jesuits) 출신 교황이자 미주 출신 첫 교황이라는 점에서 바티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가톨릭 수도회인 예수회는 1534년 창립 이후 교황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그동안 교황을 배출하지 못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몸 담았던 예수회는 특히 교육 부문에서 가장 진보

적인 교회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평생을 기도와 고행을 통해 봉사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실천해온 그는 대주교 직에 오른 뒤에도 운전기술을 따로 두지 않는 청빈한 생활로 잘 알려져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그는 텔덜거리는 시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음식을 직접 만들고 누구나 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대주교 판례에 살지 않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왔다.

그가 자신의 교황명으로 청빈과 겸손으로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를 택한 것도 이 같은 소박한 삶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193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출신 청贫노동자 가정의 5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공립학교에 다니며 원래 화학 기술

자가 되려고 했으나 스물두살이던

1958년 예수회에 입문해 수도사의 길

을 걸었으며 산마겔 산호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철학과 문학을 가르쳤다.

1969년 사제서품을 받은 그는 30대 시절 수도사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1970년대 후반까지 아르헨티나 지방을 둘러 사목 활동을 했으며, 서른여섯살이던 1980년에는 산마겔 예수회 수도원의 원장으로 발탁됐다.

그는 독일어와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이탈리아어에 능통해 로마에서 일하는데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에 올랐으며 2001년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많은 분석가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이탈리아 이주 가문 출신인 그가 독일에서 공부한 점이 보수적 성향의 쿠를라베에서 교황으로 선출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으로 교황청 관료제를 개혁할 적임자라는 점 때문에 개혁적 성향의 추기경들로부터도 지지를 확보했을 수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간지 클라린의 종교 담당 기자는 새 교황에 대해 과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처럼 “교리에서는 보수적이지만 사회적 이슈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치하에

서 예수회를 이끌면서 “비(非)정치화를 견지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남미 좌파 성향의 해방신학과는 거리를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기 경재임 당시 사회적 포옹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사교적 삶을 즐기기는 않으나 탱고와 축구를 좋아한다.

/연합뉴스

## “라틴아메리카 가톨릭의 승리”

아르헨티나, 흥분·감동 속 축하 물결... 세계 지도자들, 세계평화 주문

### 중남미 대환경

중남미 지역은 13일(현지시간) 아메리카 대륙의 사용 첫 교황 탄생을 일제히 환영했다. 새 교황으로 선출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76) 추기경의 고향인 아르헨티나는 물론 가톨릭 신자 수 세계 1위와 2위인 브라질과 멕시코를 비롯한 각국에서 축하 메시지가 잇따랐다.

아르헨티나는 베르고글리오 추기경

이 새 교황 프란치스코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가톨릭계는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에게 “교황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목사로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크게 반겼다. 주요 도시에서는 거리를 달리던 차량이 일제히 경적을 울리며 새 교황 선출을 축하했다. 일부 언론은 프란치스코를 축구용 마라도나와 리오넬 메시에 비유하며 ‘아르헨티나 최대의 경사’로 표현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에게 “교황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목사로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은 아쉬운 속에 축하 인사를 보냈다.

브라질은 자국의 오길로 페드로 스 세레르(63) 추기경(상파울루 대교구장)을 유력한 새 교황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초기

경을 선택하자 아쉬움 속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세계 각국의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도 새 교황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1세가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세계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가 돼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바らく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최초의 미주 출신 교황의 탄생은 이 지역의 힘과 활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 교황에게 “세계의 여러 종교 간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 1955년 한국 진출... 광주·전남은 순천영성센터가 유일

### 새 교황 배출 예수회는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교황을 배출한 예수회는 프란치스코회, 베네딕트회, 살레시오회와 함께 가톨릭 4대 수도회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에는 1955년 지부가 처음 세워

졌으며 광주·전남 지역에는 순천 낙안면에 있는 ‘순천 예수회 영성센터’가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이 센터는 신부 4명과 직원들이 영성을 목표로 한 피정(가톨릭 신자들이 행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련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수회는 지난 1962~1969년에는 광주가톨릭 대신인 광주 대건신학교를 위탁 운영했으며, 세계 100여 개 국에서는 200여 개의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을 설립하고 4000여 개의 중·고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세워 운영 중이다.

한국 관구에는 현재 주교 1명, 신부 105명, 연학수사 51명 등 모두 176명의 회원이 소속돼 교육·사회·영성 등의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원로인 조비오 신부는 새 교황에게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모든 종교인이 화합하고 협력해 세계 평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I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어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 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육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식음료팀 이상숙 팀장
- 전 화 : 061-320-7799
- 이메일 : guy0818@hanmail.net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50년 전통 데려온 학원원

## 북경당 한의원

##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진료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법 제28조(3)~(6) 항

## 中

## 시진핑시대

## 본격 개막

### 중국 공산당 연혁

중국 공산당 창당 제1차 당대회 개최	1921
1차 국공합작 결별	1927
장사(江西) 소비에트 설립	1931
대장정	~35
2차 국공합작 항일통일전선 구축	1936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949
백화체방(白花齊放) 운동	1956
마오쩌둥 대약진운동	1958
문화대혁명	1966
마오쩌둥 사망, 4인방 체포	1976
당사오령 집권	1977
톈민연 시대, 장쩌민 총서기 임명	1989
장쩌민 당총서기 직임	1997
후진타오 당총서기 직임	2002
장쩌민 후진타오에게 국가주석직 이양	2003
장쩌민, 후진타오에게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임명	2004
시진핑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임명	2010
8일 제18차 당 대회 개최, 제5세대 지도층 출범	2012 11월
15일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 시진핑, 주고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임명(후진타오 당원 회진)	2013 3월

## 국가주석 등극... 黨·政·軍 장악

### 부주석 리위안차오·전인대 상무위원장 장더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다.

전인대는 시진핑이 유효표 2959표 가운데 1,935표, 반대 1표, 기권 3표를 받아 국가주석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시진핑은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당대회)와 제18기 1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이어 이번에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올라 당, 정부, 군 등 3대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의 국가주석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법률을 공포하고 특사, 계엄령, 선전포고, 동원령 등을 공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시진핑은 전인대 폐막일인 17일 국가주석으로서 첫 연설을 통해 새 통치집단의 공식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면서 국정운영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교황은 어떤 자리인가

#### 교황

사도 베드로의 정통성을 있는 가톨릭교회의 수장, 로마의 주교

#### 교황청 연감에 따른 정의

##### 로마의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 사도의 후두머리 베드로의 후계자

##### 전세계 가톨릭교회의 수장(최고사제)

##### 서유리아의 수석(수좌) 대주교

##### 로마 관구대주교 수도대주교